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열반당 도깨비

교황, 나치 피해 여성 팔목에 입맞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5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바티칸 사도궁 옆 '산 다마소' 안뜰에서 열린 일반알현에는 폴란드 출신 여성 리디아 막시모비치(81)가 자리를 함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현자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왼팔에는 아직도 수용자 번호 '70072' 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막시모비치가 수용자 번호를 보여주고자 소매를 걷어 올리자 교황은 허리를 숙인 채 번호에 입을 맞췄다.

막시모비치는 만 3세가 채 되지 않은 1943년 당시 거주하던 벨라루스에서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 부모와 떨어져 아동 수용관에 배치돼 생체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45년 종전 후 폴란드의 한 가톨릭 신자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18세 때 친모와 극적으로 재회했다. 비극의 상징인 수용자 번호가 이들의 재회를 가능하게 했다. 어머니의 팔뚝에는 '70071' 이 새겨져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치의 전쟁 범죄를 자주 언급하며 인종·이념의 극단주의를 경계해왔다.

신앙 도서 독후감 모집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가 신앙 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

추천도서는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윌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키지로) 등 5권이다. 독후감 길이는 레터 사이즈 3페이지 (MS워드 기준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분량이며 제출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미 서부시간 기준)이다. 독후감은 응모자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 번호, 거주지 주소를 명기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최우수상(1명, 500달러), 우수상(2명, 300달러), 장려상(3명, 200달러)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의 및 독후감 제출
wkcmmailbox@gmail.com

염불 기도만을 10년간 계속해 온 보살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소사찰을 찾아 다니며 백일기도에도 동참하고 집안에도 기도실을 마련, 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고 하루 세 번씩 정진하며 수선 안거철이면 수행하는 스님들 공양을 지어드리고 공덕을 짓겠다고 집을 나섰고 대소 불사에 권선 화주하는데 아주 열성인 보살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신심이 깊고 수행력이 많은 지극한 불자이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 또 불같은 성격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

한 도반이 그 보살의 잘못된 신심을 고쳐 불까 하여 그 보살이 기도하는 법당을 찾았습니다.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진성과 함께 구슬땀이 흐르는 것을 씻을 새도 없이 절을 하는 보살을 보았습니다. 도반은 법당 문을 두드리며 "보살님! 보살님!" 하고 불렀습니다. 기도 시간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보살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며 절만 하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만 하는 그 보살의 뒤에 대고 도반은 더 큰소리로 "보살님!" 하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보살은 염불을 그치고 법당 밖의 도반에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왜 보살님은 남의 기도시간에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 댁니까?" 도반은 웃으며 "보살님 내가 보살님 이름을 10분간 불렀는데 보살님은 그 정도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10년간이나 불러왔으니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공부를 위해 염불하고 참선을 하지만 이기심이 바탕이 된 신앙과 수행은 자신의 업만 두텁게 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란 자비와 구원의 화신을 일컫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을 향한 크나큰 사랑으로 조건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므로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청명함은 적게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온갖 생명들 속에서 실현코자하는 회향의 크고 넓은 마음으로 쓰여 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관세음이라는 위대한 정신을 한갓 자신의 장엄물로 삼으려는 소아적인 발상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절에 10년 아니라 30년, 평생을 다녔더라도 관세음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이 관세음의 마음으로 변형되어 가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총만하여 겉으로 짓는 상과 신심은 정진과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비록 단 한번을 염불하고 단 한번을 절할지언정 관세음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념이 만년되게 정진함이 진정한 불자의 기도입니다.

큰절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열반당 도깨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열반에 이를 정도의 신행을 잘한 분을 일컫는 것 같아도 그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다녀 절에 행사나 염불 기도 등은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을 부쳐요,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어느 일이나 나서면서 사중과 대중들의 흥취를 들춰내어 분란과 시비의 일을 만들어 내는 보살이나 불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흥이나 허물은 쓸어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털 깨인 제자들을 이끄신 것을 우리는 주리반탁가나 라훌라난타 등의 예화에서 봅니다.

좀 부족한 제자일망정 부모가 못한 아들 아끼듯 더욱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필 때 본성 속에 숨어있는 지혜와 자비의 싹이 움터 나와 온전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이들이 그들이지요.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의 아들과 딸이거나 제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이 몸은 부정모형을 빌어 나왔을 망정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을 가리켜 진리의 아들, 법의 계승자라 하는 것이지요.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의 참 가치가 진정한 법의 계승자요 진리의 아들 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확연하게 다가 온다면 그 기쁨 즉 범피 선열 속에서의 삶 또한 안정과 행복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의 삶이 되도록 함에는 부단한 정진과 노력이 함께 요구 됩니다.

-무오 스님-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